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고품질 '영광 천일염' 본격 생산 알리는 채염 행사 개최

군유염전서 김준성 군수 등 200여 명 참석

영광군은 지난 3일 군유염전에서 천일염 첫 생산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무사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천일염 채염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준성 군수, 김점기 염산면장, 손재관 천일염생산자협의회장, 김영관 영백염전 회장, 민동성 대표, 기관 사회단체, 천일염업체 대표와 생산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영광 천일염산업은 생산기간 단축 등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하락으로 인해 수익성이 낮은 소금 생산을 접고 태양광 시설로 업종 전환을 추진중에 있어 생산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행사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일염 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천일염 생산을 통한 고급화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경쟁력 제고와 생산가격 안정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일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염전 체험장 운영, 소금 찜질방, 족욕탕, 소금 레스토랑 운영 등으로 관광객 유치와 천일염을 이용한 화장품, 다양한 기능성 제품개발 지원 등을 통해 천일염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일염 채염 행사는 소금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된 날을 기념하고, 천일염 생산자들의 정보교환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보성군,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오는 12일까지 폐비닐 · 폐농약용기류 등 수거

보성군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주간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작지 등에 방치되어 있거나 불법소각 및 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여 영농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농촌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군은 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읍면별로 이틀씩 수거의 날을 지정해 마을별 수집장 또는 임시수집장에서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을 수거하고 있다.

농가에서는 폐비닐의 경우 흙,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재질 및 색상별로 분류하고, 농약병은 농약이 다 비워진 병과 봉지를 분리해 마을 수집장에 모아두면 된다.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농업인과 단체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이 매월 통보하는 영농폐기물 수거실적 자료에 기준해 등급별로 수거보상금을 받고 있다.

등급별 지급단가는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과 흙이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인 A·B등급은 킬로당 70원, 그 외 폐비닐 C등급은 60원, 플라스틱과 농약봉지는 각각 킬로당 1,600원과 3,680원씩 지급된다.

군은 읍·면에서 공동으로 종합 수거한 폐비닐 및 농약빈병 보상금을 새마을회와 의용소방대 등 지역단체와 협조를 통해 연말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과 함께 폐기물 불법소각 및 투기방지,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보성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함평군, 음식점 청결 · 친절서비스 캠페인

오는 13일까지 일반음식점 321개소 대상 실시

함평군이 관내 일반음식점 321개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청결 및 친절서비스 실천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외식업함평군지부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3개반 6명이 위생복장 갖추기, 조리 전 손 씻기, 식자재 유통기한 준수, 남은음식 재사용 금지, 덜어먹기 등 음식문화 개선에 집중한다.

특히 군은 칼, 도마, 냉장고 손잡이 등 주방기구의 세균오염도를 측정하여 위생관리 인식을 바꿔나간다는 생각이다.

군 관계자는 "4월중엔 음식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고객들에게 만족스런 맛과 서비스를 제공해, 다시 찾고 싶은 함평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영광군, 논두렁 PE필름 설치 연시회

농업용수 부족 현상 대비 논물 가두기 일환

영광군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기상 이변으로 농업용수의 소모가 증가됨에 따라 작년과 같은 물 부족 현상을 대비하기 위해 봄철 논물 가두기의 일환으로 논두렁에 PE필름을 설치하는 연시회를 2일 백수읍 하사리 일원에서 개최했다.

논두렁에 PE필름을 설치하는 사업은 2016년 영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농가들의 긍정적 반응에 지속적으로 사업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에는 50ha, 2017년에는 220ha를 설치했고, 2018년에는 하반기까지 400ha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논두렁에 폭 30㎝, 두께2mm 정도 되는 PE필름을 포클레인에 부착된 기계로 논두렁을 따라 중간에 매설함으로써 땅속 동물로부터 논두렁을 보호하여 논물 손실을 막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사업을 실시한 농가들은 논두렁이 견고해져 논물이 100% 이상 절감되고 또 논두렁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현저히 줄어들어 생산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다. 또한 친환경 재배를 하는 농가에서는 두더지나 드렁허리가 논두렁에 구멍을 내는 피해를 막을 수 있어 자연적 제초가 쉬워 농가 개인적으로 논두렁에 PE필름을 설치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장성군 보건소 "눈을 크게 뜨세요"

60세 이상 전문의 무료 안 검진…시력 및 안압 굴절검사 실시

장성군보건소가 지난달 30일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함께 60세 이상 주민을 상대로 눈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안(眼) 검진을 실시했다.

보건소에서 6시간동안 진행된 안(眼) 검진은 전액 무료로, 재단 측에서 나온 전문 의료진이 168명의 주민의 눈 상태를 점검했다.

검사는 읍면별 인구를 고려해 오전에는 장성읍 주민을, 오후에는 면지역 주민을 상대로 진행됐다.

기본적인 시력검사부터 안압 및 굴절 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등이 이뤄지고 일부 주민들에게는 안약과 돋보기 등을 배부했다.

검진결과 168명의 검진대상자 중 백내장,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이들이 14명 발견됐다.

보건소는 이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5명에 대해서는 개안수술비를 지원해 무료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장성군보건소는 이날 중년층 이상 주민들이 주로 찾아올 것으로 보고 안(眼) 검진 이외에도 고혈압, 당뇨병등록 센터와 연계해 관련 질환 예방법과 치매 예방법 등을 알리는 건강교육을 함께 실시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눈이 침침한 어르신들이 노안이라고 여기고 치료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빠른 치료를 받을수록 눈의 건강 수명이 길어진다"며 "이번 무료 검진이 큰 부담없이 눈 건강을 체크하는 좋은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반정모 기자

고흥군, 다문화자녀 태권도교실 운영

고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황상철)는 2018 '주한 외국인 태권도교육' 사업에 선정되어 고흥청동석사태권도장(관장 김동완)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 자녀 태권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정 자녀 20명을 대상으로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태권도의 기본기술, 품새, 호신술, 겨루기 등의 교육 및 승급심사를 통하여 단증취득과 함께 한국의 문화를 익히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유도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황상철 센터장은 "이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집중력을 키우며 매사에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이며 진취적인 사고 및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